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군산형 일자리 조기 안착 '통 크게' 지원

도-군산시-전북신보-NH 전북, 특례보증 지원 협약  
지원 규모는 400억원... 100원까지는 무담보로 보증  
지원 대상은 '신용평가 B등급 이상' 일자리 참여기업

전북도와 군산시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의 지역 조기 안착을 위해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군산시, 전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 전북본부와 전북 군산형 일자리 특례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송하진 도지사과 강입준 군산시장,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장기오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 등 각 기관장이 직접 서명하며, 참여기업들이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출연재원은 100억원이며, 보증 지원은 400억원 규모이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각각 50억원씩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며,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업체당 기 보증액 포함 최대 100억원까지 담보없이 보증을 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으로 재단 기업 신용평가가 스텐에 의한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 기업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상

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년 상환조건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또한, 향후 기업의 매출증가, 신용도 상승 등 경영상황 호전시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도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으로 사업 초기 기업의 금융예로를 해소하고 금융부담 경감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화로 '군산형 일자리'의 조기안착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정부 상생영 지역일자리에 최종 선정된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단순 지정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지정 이후 원활한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다.

이에, 도는 선정 이후 경영 안정자금 지원 고충안정 및 인력양성, 근로자 복지 등 참여기업의 조기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내실있게 추진 중이다.

한편, 전북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은 올해 본격적으로 생산·고용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 기업인 명신은 지난 24일 전북 군산형 일자



전북도는 군산시, 전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 전북본부와 전북 군산형 일자리 특례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리 1호차인 '다니고 VAN' 출시를 앞두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2022년부터는 해외 3개 회사의 전기 SUV 1만5,000대를 본격 위탁생산을 시작해 2024년까지 총 20만여대를 생산할 계획으로 생산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새만금 제1공구에 입주하는 (주)에스모터스는 지난해 9월부터 신규공장을 착공 당초 계획보다 빠른 올 6월

말 완공 예정으로 6월초 신규인력 80명을 채용했다.

(주)대창모터스 (주)MFS코리아 (주)코스텍도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협약에서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참여기업의 지역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미래 신산업으로 전북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전국 최대의 전기차 생산기지로 성장해 전국적인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 대표들은 "지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참여기업에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력에 미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특수형 중심 조선산업  
생태계 구축 추진책 모색

도,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전북도가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25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산·학·연 조선산업 분야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중간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반영시킨 결과와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특수목적선은 관공선, 합정 등 공무·국방 목적으로 연안에 운영되는 선박이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약 5,318억원 규모로 단지 조성, 기업입주 공간 및 친환경기술 대응 시험연구센터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는 도내 조선해양 산업의 위기 극복의 시발점이 돼 조성 후 5년 내 연간 수주액 4,5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단지내 고용 유발도 1,000명 이상 창출할 것으로 전북도는 예상하고 있다.

전병순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은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에서 벗어나 우리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술 기반의 중소형·특수형 중심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전북 조선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안정적인 새만금 개발 '선순환'

개발청, 송 지사 제안 '새만금권역 행정협 합의안' 수용  
전북도-군산·김제시·부안군과 '지역상생협약' 체결  
지자체장 변경돼도 수상태양광사업 종료 시까지 효력

시 강입준 시장 김제시의 강해원 부시장, 부안군의 박현규 부군수 등이 참석해 상호 이해하는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그동안 지자체간 행정구역 관할권 문제 등

으로 갈등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최근 새만금 권역의 행정협회가 발족하면서 갈등 해결의 계기가 마련됐다.

또한 새만금청이 이 행정협회의 합의 및 건의사항을 존중해 수용기

로 함으로써 이번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상생을 위한 새만금권역 행정협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2단계 사업(900MW)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450MW, 225MW, 225MW로 각각 배분하고, 합의된 배분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는 새만금개발청의 투자유치형 사업을 상호 존중하고, 사업추진에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협약사항은 향후 지자체장이 변경되더라도 수상태양광사업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지게 된다.

또한 각 지자체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기반한 투자유치형 사업 등에 대해 향후 관할권 분쟁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 권역 단체장들의 대승적 결단으로 '새만금 권역 행정협회의'라는 대전환점이 마련됐고, 이 협약식은 우리의 합의와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새만금개발청도 지역의 뜻에 공감하고 기꺼이 동행을 결정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이어 "새만금의 미래는

재생에너지로 더 풍성해지고 있다"며 "수상태양광 등 사업이 속도감 있게 이뤄져서 새만금이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지자체간 상생협약을 통해 그간 불거진 갈등과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속도감 있는 재생에너지 추진이 가능해졌다"면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서 재생에너지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JB카드 SK OIL & LPG 카드 출시**

•전북지역 SK주유소 및 충전소 **최대 L당 120원 청구할인!**

•생활서비스 **최대 1만원 청구할인!**  
(주차장, 세차장, 자동차정비, 대형마트, 커피, 약국)

\*연회비: 국내 전용(Local) 10,000원(기본연회비 10,000원 + 제휴연회비 0원) / 해외 겸용(Master) 15,000원(기본연회비 15,000원 + 제휴연회비 0원)

**이벤트 기간 내(2021.5.3(월) ~ 6.30(수)) 온라인 신청 후 1회 사용 시 SK 주유권 1만원 모바일 쿠폰 증정**  
※ 쿠폰 발송일: 7월 첫째 주 1차 발송, 9월 첫째 주 2차 발송(중복 제외)

※계약체결전카드상품 및 연회비와 관련된 사항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 + 최대3% 법정 최고금리(24%) 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동일할부계약기간의 유이자할부금리 - 무이자할부 거래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동일할부계약기간의 유이자할부금리 - 그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사법정기율과 상호금융거래자금대출금리중 높은 금리 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기준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필요이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신 경우 회원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다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카드 납부대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정당한 경우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법 제19조 제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1588-4477 www.jbbank.co.kr 전북은행